

# 방탄소년단 “이젠 음악인의 꿈, 그래미

빌보드 핫100 1위 기념 간담회  
1위 소식에 밤새 눈물만 흘려  
모든 게 아미·회사 스태프 덕  
월드투어 재개로 팬 만남 소망  
그래미 무대에서 단독 공연 목표

그래미 어워즈라는 꿈에도 도전해보고 싶다”고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에서 가장 유서 깊고 권위 있는 대중음악 시상식이다. 대중성뿐만 아니라 음악의 예술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상한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월 열린 그래미 어워즈 2020에서 팝스타 릴 나스 엑스와 합동 공연을 펼쳤다. 슈가는 “그래미에서 방탄소년단이 단독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며 웃었다.

방탄소년단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100 1위에 오를 때 “눈물이 터져 나왔다”고 회상했다. 멤버 지민은 “새벽 4시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오전 7시까지 평평 울다 지쳐 잠들었다”고 했다. 매행인 진은 “처음 빌보드 1위 차트 사진을 받았을 때 합성이라고 생각해 믿지 않았지만, 20분이 지나서야 그게 진짜란 걸 알게 됐다”고 했다. 방탄소년단은 이 모든 성과가 “팬클럽 ‘아미’와



2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방탄소년단. 왼쪽부터 뷔,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제공=빅

“그래미 어워즈는 모든 음악인의 꿈입니다. 그곳에서 단독으로 노래도 해보고 싶고, 노미네이트도 되고 싶습니다. 물론 상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커온 꿈이니깐요.”

빌보드 핫100 1위 신화를 쓴 방탄소년단이 다음 목표로 ‘그래미 어워즈’를 겨냥했다. 2일 열린 ‘다이너마이트’ 빌보드 핫100 1위 기념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리더 RM은 “방탄소년단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회사 그리고 기자들이 함께 만든 것”이라고 겸양했다.

힘든 과거도 영광의 순간엔 아련한 추억이 되게 마련이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7년간 자신들이 달려온 장면 장면이 떠오른다고 했다. 부산 출신인 멤버 뷔는 “처음 서울에 상경했을 때 택시가 바로 앞 건물을 가는 데 터널을 세게 지나간 기억이 떠오른다”면서 “당시에는 많이 화가 났는데, 지금의 성과가 그때와 비교돼 재밌다”고 말했다. “좁은

지하실에서 옹기종기 모여 연습한 것도 생생한 추억”이라고 덧붙였다. 제이홉은 “7년 전 힘들어하는 나 자신에게 ‘노력이 배신하지 않을거야’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정국은 “마침 1일이 생일이었는데, 잊지 못할 큰 선물을 받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다이너마이트’는 K팝이 극성 팬덤 위주의 음악이 아니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대중성을 가능하게 하는 지표인 빌보드 핫100 1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방탄소

년단이 미국 문화 전반에 힘을 행사한다는 증표다. 코로나19 시국 때문에 빌보드 핫100의 ‘다이너마이트’가 수 있었던 것 같다”면서 우리 음악이 미국 대중에게 가까이 접근했는지는 모르겠다. ‘신기록 제조기’라는 말에도 일곱 멤버는 팬들과 말라했다. 코로나19로 월드투어 중단됐기 때문이다.

## 가면 속에 숨긴 정체성...현대인을 풍자하다

인니 작가 ‘에코 누그로호’ 개인전  
자수 장인과 협업해 짠 화면  
전통공예 살리는 데 기여  
만화적 상상력으로 부조리 고발

울창한 정글 속에서는 2개만 내놓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보인다. 대부분 어디를 볼지 몰라 시선을 내리깔거나 감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민 작가 에코 누그로호(43)는 자국의 전통 염색법 바틱과 자수로 짠 화면을 통해 현대 정치 사회 부조리를 풍자한다. 독재자 수하로도 정권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이뤄냈지만, 이 눈치저 눈치보면서 살아야 하는 국민의 심정을 드러낸다. 가면에 정체성을 숨긴 사람들은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지만, 한 손 자체가 칼이나 집게여서 누군가를 쉽게 공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내한하지 못해 지난 1일 서울 아라리오 갤러리 개인전 ‘Lost in



자수 회화 ‘Camouflage Generation (위장세대) #2’.  
(사진제공=아라리오 갤러리)

Parody (패러디 속에서 길을 잃다)’ 간담회에 영상으로 참가한 작가는 “인도 전통의상의 다양한 가면을 활용했는데

신화적이고 우화적인 의미가 있다”며 “눈만 내놓고 입을 가린 사람들은 소통하지 못하는 현대사회를 표현한다”고 말했다. 가면 쓴 얼굴들은 평화 이면에 숨어 있는 폭력과 차별, 혼란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화면 뒤쪽 구석에 하늘과 초승달, 별 등을 수놓아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강조한다. 작가 역시 인도네시아 예술계 희망이다. 2007년 산업화에 밀려 사라져가는 전통 자수 사업을 살리기 위해 장인들과 협업으로 ‘자수 회화(embroidered painting)’를 제작해 오고 있다. 전통 자수 공동체와 작가의 서로에 대한 믿음이 씨실과 날실처럼 짜여 있는 작품들이다. 작가는 “자수장인 2명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함께 작업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누그로호는 자수 회화를 활용한 작품을 2013년 베니스 비엔날레 인도네시아관에 전시해 자국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렸다. 자카르타 공항 벽에도 그의 대형 벽화가 걸렸을 정도

로 인도네시아 대표 작가다. 자수 계승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전통 인형극을 재해석한 외양 보코르 극단을 운영하고, 어린이를 위한 에코 아트 수업도 진행하고 있다.

2013년 국내 첫 개인전 이후 7년 만에 열린 이번 개인전에서는 숲 대신 쓰레기 더미 속에 두 눈동자를 드러낸 신작을 선보였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아 설치 작품을 만들 정도로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다. 지하 1층에는 자수 회화를 걸고, 2층에는 회화 작품을 펼쳤다. 그는 “원래 서울에서 벽화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가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젊은 작가답게 전통 기법에 만화와 애니메이션 등 팝아트적 요소를 접목한 회화들이 눈에 띈다. 만화강국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 역사와 유년 시절 유행한 일본 애니메이션 영향이 짙다. 웅과 싸우는 기사, 정글 속에 잠복해 있는 피에로와 원숭이에서 만화적 상상력이 발휘됐다. 전시는 11월 14일까지. 전지현 기자

## 왕건 스승 보물서국

10세기께 고승(高僧)을 조각한 불상이 국보로 문화재청은 경남 합천에서, 신라 말기부터

활동한 승려 희랑 대사의 제999호 ‘건철희랑대사로 승격한다고 2일 밝혔다. 태조 왕건(王建)이 하는 데 큰 도움을 준 건의 스승으로도 일컬어진다. 왕건도 은혜에 보답해 인사 증장에 필요한 하사하고 국가의 중요 이곳에 두었다고 전한다. 조선 학자 유구경(1691~1767)에 따르면 고려 초기 유년(949년) 정(正)에 나라에서 시호 내린 교지가 해인사에 남아있었다고 해 희랑 대사의 입적 시기는 949년께로 추정된